

2005. 10.16. 서울시 9급 국어 복원 문제와 해설

1. 독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① 殺菌 ② 殺到 ③ 殺戮 ④ 殺伐 ⑤ 殺生

<지나뻘>정답 (2)번입니다.

殺 죽이다 (살), 매우, 덜다 (쇄)

① 살균 - 균을 죽이다.

② 쇄도 - 매우 세차게 몰려들다.

③ 살육 - 마구 죽임

④ 살벌 - 분위기나 풍경, 또는 인간관계 따위가 거칠고 서먹서먹하다.

⑤ 살생 - 살아 있는 것을 죽이다.

2. 밑줄 친 대상 중, 기능적 측면에서 ㉠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은?

우리는 둥근 문화권에서 살아 왔다. 우리의 신체 구조는 둥근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얼굴도 그렇고 어깨선도 둥그렇게 되어 있다. 엉덩이도 여인의 가슴도 둥그렇게 아래로 처진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인도 보름달 같거나 계란 같은 얼굴의 미인을 전통적으로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동실동실 생긴 여인네는 못남성들의 이상적 아내형이었고 또 맘머느리의 표준이 되었다. 이러한 문화권이기에, ‘둥글게 사는’ 부드러움이 미덕이었다.

서양인들은 직선의 문화 속에서 살아 왔다. 신체 구조도 우리보다는 훨씬 직선적이다. 그래서 오뚝한 콧날을 지닌, 선이 분명한 미인을 그들은 찾았고 신체 구조상 어깨선과 엉덩이도 우리처럼 처진 모양이 아니다. 여인의 가슴도 뾰족이 튀어나온 모습이기에 그들의 ㉠가슴가리개는 가리는 역할보다 튀어나온 가슴을 자랑하기에 적당한 것이 되었다. 반면에 우리는 여인의 가슴을 짓눌러 더욱 둥그렇게 아래로 처지게 하고 있다.

- ① 정치권은 모름지기 국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장소여야 한다 .
② 방납시를 하려면 적어도 방수옷을 준비해야 하지 않은가?
③ 거실을 좀더 아름답게 꾸미려면 빠꾸기시계 하나쯤은 걸어 두어야 한다.
④ 그 버스는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기에 적합한 구조와 크기를 가지고 있다.
⑤ 이 의자는 인체의 구조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어도 피로가 오지 않는다.

<지나뻘> 정답은 (3)번입니다.

가슴가리개의 원래의 역할이 부끄러운 곳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으나 가슴을 보다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역할이 더해졌습니다. 원래의 실용적인 역할과는 다르게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바뀌었다는 것으로 볼 때, ‘빠꾸기시계’를 정답으로 봐야겠습니다.

시계의 원래의 역할이 시각을 알기 위한 것이었으나 방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이 더해졌습니다.

3. 김시습 작품(지문 : 배경은 남원)

- ① 이생규장전
② 만복사저포기
③ 호질
④ 사씨남정기
⑤ 용궁부연록

<지나뻘> 정답은 (2) 만복사저포기입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5편-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③ 호질 - 연암 박지원의 소설(북관선생을 꾸짖는 호랑이 - 도학자의 위선을 풍자)

④ 사씨남정기 - 서포 김만중의 소설입니다. (가정소설,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풍자, 이 소설로 소설공정론 대두)

(1)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줄거리 : 남원에 사는 노총각 양생(梁生)은 어느 날 만복사의 불당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저포(樗蒲)-윳과 같은 기구)놀이를 청했다. 그가 지면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릴 것이요, 부처님이 지면 그에게 아름다운 배필을 중매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기였다. 서생은 두 번 저포를 던져 이기게 되어, 불좌 밑에 숨어서 배필이 될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 때 문득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나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하소연하면서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기원하였다. 이를 본 서생이 그 여인 앞으로 뛰어나가 회포를 말하니 두 사람은 정이 통해져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실은 이 여인은 인간이 아니라 왜구가 침범한 난리통에 죽은 처녀의 환신(幻身)이었다. 이튿날 여인은 서생에게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기를 권했고, 서생은 거기서 웅숭한 대접을 받았다. 사흘 뒤 그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여인이 서생에게 신표로서 은주발 한 개를 선사하였는데 그것은 그 여인의 무덤에 매장한 부장품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보련사(寶蓮寺)에서 다시 만나 되었다. 그러나 재(齋)가 끝난 뒤 여인은 인연이 끝나 마침내 혼자서 저승으로 떠나 버렸다. 이 날은 여인의 대상(大喪)인 동시에 재(齋)를 지내는 날이었던 것이다. 서생은 끝내 그 여인을 잊지 못하여 장가도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면서 평생을 마쳤다.

주제 : 시공(時空)을 초월한 사랑

(2)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줄거리 : 어느 봄날, 이생은 우연히 귀족집 담장 안을 엿보다가 문득 최 낭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내 꽃다운 인연을 맺게 되었으나, 당시 귀족 집안의 엄격한 도덕과 규율로써는 이러한 야합이 허용될 수 없었다. 이 일은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그를 먼 곳으로 쫓아버렸고, 아가씨는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처녀의 부모는 매자(媒者)를 이씨네 집에 세 번이나 보내어 그들의 인연을 맺어 주었다. 그 후 나라 안에 흥건적이 침범해 와서 두 집안 가족들이 각기 사방으로 흩어져 갔다.

이생은 간신히 도망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으나, 아가씨는 끝내 정조를 지키어 적도의 손에 죽었다. 이생이 피난에서 돌아오니 빈집만이 남아 있었다. 조금 후에 그 곳에서 그는 아내를 만났는데, 그녀가 이미 죽은 환신(幻身)인 줄 알면서도 반가이 맞아 주었다. 그러고는 아내와 함께 도적에게 죽은 두 집 부모의 유골을 거두어 잘 장사지내 주었다. 그 후 아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몸이 환신임을 말하고 이제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울음을 터뜨리고는 사라져 버렸다. 서생도 몇 달 후에 아내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주제 :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간절한 소망과 사랑.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3)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줄거리 : 송도의 홍생(洪生)이 유람을 겸한 장사를 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서 친구들과 같이 대동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취흥을 이기지 못하여 홀로 작은 배를 타고 부벽정(浮碧亭) 아래에 이르러, 정자 위로 올라가서 난간을 의지하고 고국이 되어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 온다. 홍생은 영명사(永明寺)의 종이 찾아오는가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한 미인이 좌우에 시녀를 거느리고 비단 부채를 들고 나타나는데, 그 위의(威儀)가 엄숙하고 정숙하여 마치 귀족 집안의 처녀 같았다고 하거니와, 홍생이 시녀의 내영(來迎)을 받아 누상으로 올라가서 그 미인과 인사를 나누게 된다. 그 미인의 신분은 은왕(殷王)의 후예요, 기자왕(箕子王)의 딸로서, 부왕(父王)이 위만(衛滿)에게 왕위를 빼앗긴 후로 정절을 지켜 죽기를 기다리는데, 신선이 된 선조(先祖)가 나타나 불사약(不死藥)을 주어 그 약을 먹고 수정궁(水晶宮)의 상아가 되었다는 것이다. 홍생이 부벽루에서 그 선녀와 하룻밤을 지내며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부르다가 날이 새자 그 선녀는 승천하고, 홍생은 집에 돌아와 그 선녀를 생각하며 사모하던 끝에 병에 걸렸는데, 그 선녀의 시녀가 나타나, “우리 아가씨가 상제(上帝)께 아뢰어 견우성(牽牛星) 막하(幕下)의 종사(從事)를 삼았으니 올라오라.”고 일러 주는 꿈을 꾸고 난 뒤,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은 후, 분향하고 누웠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빈장(殯葬)한 지 몇 달이 지나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해설 : 이 작품은 죽은 여자의 혼령이 산사람처럼 나타나 주인공과 함께 어울렸다는 점에서는 명혼소설(冥婚小說)이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선녀이기에 육체적인 관계는 배제되어 있다. 만남이 꿈 속의 일인 것 같다는 설정은 몽유소설(夢遊小說)과 상통하지만, 꿈의 시작과 끝을 불분명하게 해서 한층 더 미묘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도가적(道家的)인 취향과 관련된 주제적인 사관(史觀)을 내면적인 신념으로 승화시켰다.

(4)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줄거리 : 박생(朴生)이 하루는 주역(周易)을 읽다가 조는 사이에 염라국으로 들어간다. 비참한 지옥의 모습을 보고 놀란 박생은 수문장이 안내를 받아 염라왕의 앞으로 가서 후한 대접을 받고, 염라왕과 문답을 주고 받는다. 염라왕은 원래 박생에게 항상 정직하고, 항거하는 뜻이 있어 세상에 살면서 굶기지 않는 박생을 만나보고 싶었다고 한다. 박생은 염라왕에게 제왕의 마땅한 자세를 역설하고 염라왕은 박생의 이야기에 동조하며 박생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 준다고 했다. 그러나 저승과 염라왕 등의 환상을 비판하고 현실 정치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펴고 이승으로 돌아온다.

주제 :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한 불교 철리(哲理)

해설 : 이 작품은 특히 김시습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일상적, 현실적 것과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그린 소설로서 문학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 작품의 내용은 불교를 사도로 보고 있으면서도 불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종교관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관에 대해서는 왕도(王道)와 패도(霸道)의 차이를 말하며 왕도를 고취하고 패도를 배격하고는, 고금(古今)의 여러 왕들의 치란(治亂)이 자취를 들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이상의 유교관(儒敎觀), 불교관(佛敎觀), 정치관(政治觀) 등으로, 작자는 전등신화(剪燈新話)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5)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줄거리 : 고려 때 한씨(韓氏) 성을 가진 서생이 글 재주가 높아 조정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 재능을 발휘할 벼슬이나 혹은 다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꿈에 박연의 용궁에 초대되어 글 짓는 재능을

주제 : 화려한 용궁 체험과 삶의 무상감

<지나뻘>정답은 (3) 백분율, 깎두기, 수캐, 방귀쟁이, 위층 - 입니다.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백분율, 진열, 선율, 실패율, 비율, 전율 *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깎두기, 국수, 닥지, 색시, 법석, 갑자기, 몹시, 씩독 *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ㄴ, ㅎ’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멍쌀, 법씨, 입때, 접때, 쯤쌀, 험쌀 수캐, 살코기, 머리카락, 수탉, 암캐, 암탉, 안팎 * 장이 - 수공업적인 기술로써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말. 대장장이./미장이./옹기장이. * 쟁이 - 사람의 성질, 독특한 습관·행동·모양 등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그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뜻을 나타냄. 방귀쟁이./고집쟁이./허풍쟁이. * 거센소리, 된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위층, 위턱, 위쪽, 위쪽
--

6. 다음 중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꾼 것 중 틀린 것은?

- ① 노견(路肩) - 나들목
- ② 신입생(新入生) - 새내기
- ③ 안내요원(案内要員) - 도우미
- ④ 고수부지(高水敷地) - 둔치
- ⑤ 여흥시간(餘興時間) - 뒤풀이

<지나뻘> 정답은 (1)번입니다.

노견(路肩) - 갓길
 인터체인지가 나들목입니다.

7. 다음 중 맞는 것은?

- ① 띄어쓰기
- ② 문장부호 :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는.....
- ③ 맑고-> [막꼬]
- ④ 외래어 workshop-워크숍
- ⑤ 로마자표기 여의도 - Yeoeui-do

<지나뻘>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복원이 미흡합니다. ②번 보기의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 이 문장이 복원이 덜 된 듯해요.

원래부터 반점이 있었다고도 하고, 온점으로 되어있었다고도하고...

또는 이 문장뒤에 ‘~고’가 이어지는 말이 있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을 묻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복원이 미흡해서 정확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② “한국이냐, 중국인이냐?” 직접인용이므로, ~라고(~라는)...

③ [말꼬]

⑤ Yeouido

8.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된 것은?

- ① 제 1과
- ② 두시 삼십분 오초
- ③ 책상, 갈상등이 있다.
- ④ 비가 올듯 하다.
- ⑤ 김영수씨

<지나뻘> 정답은 (2)번입니다.

맞춤법 제43항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단,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① 제1과

② 두시 삼십분 오초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③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④ 비가 올 듯하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⑤ 김영수 씨

9. 윤희동의 서시의 본문에서 마지막 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의 ‘바람’과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는?

과목에 과물(果物)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가지는 한낱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모든 것이 멸렬(滅裂)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시력을 회복한다.

박성룡<과목>

①과물 ②황토 ③빛깔 ④시 ⑤시력

<지내뻘> 정답은 (2)번 황토입니다. - 보잘것없는 환경이나 삶의 조건, 시련, 고난

***박질 붉은 황토 : 보잘것없는 환경이나 삶의 조건**

***비바람 : 시련과 역경**

*멸렬하는 가을 : 소멸과 조락의 이미지

*황홀한 빛깔과 무게 : 성숙한 과일의 모습, 자연물에 대한 경이로움의 표현

*시를 읽고 : 사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마음이 황폐해져서, 또는 나태해서) 시를 짓지 못하고

*시력을 회복한다 : 과목이 주는 경이로움을 통해 사물의 내재적 의미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됨

<핵심정리>

▶성격 : 관조적, 사색적

▶제재 : 과목

▶주제 : 과목에서 느끼는 삶의 의욕

▶표현상의 특징 :

-생경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감응의 단계로 진전되고 있다.

<이해와 감상>

시적 화자는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서 비바람에 시달리던 과일나무가 가을에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나무가 가진 풍성하고 강건한 생명력에 감탄하게 된다. 이렇게 이 시는 과일 나무에 과일이 열리는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시적 화자가 관찰한 과목은 박질의 황토와 비바람이라는 역경 속에 처해 있다. 과목이 서 있는 곳은 척박한 토

질의 황토로 제대로 양분을 얻기 힘든 곳이다. 그리고 나뭇가지들은 여름내 비바람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과목은 과물을 생산한다. 그것은 모든 것이 생명을 다하고 사라지는 가을에 말이다. 시적 화자는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성숙함을 얻어내는 과목의 모습을 보면서 사대라고 표현하며 감탄한다. 시적 화자의 감탄은 '경악'이라는 표현에 집약되어 있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과일나무의 모습을 보고 시적 화자는 시를 잃고 무기력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생에 대한 의욕을 다시 되살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주변 환경을 탓하며 낙담해져만 가는 현대인들의 군상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0. 다음 중 향찰 표기로 기록된 작품은?

- ① 황조가 ② 정읍사 ③ 한림별곡 ④ 정과정곡 ⑤ 도이장가

<지나깨> 정답은 (5) 도이장가입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도이장가'가 향찰로 표기된 마지막 작품이란 것입니다.

고려 예종(1105~1122재위)이 서경의 팔관회에 참석하여 태조 때의 두 장군 신숭겸, 김낙을 추모하여 지은 작품입니다.

향찰로 지어져 '항가계 여요'라고도 합니다.(항가의 형식이지만 항가라고 단정 짓기에는 작품이 지어진 시대가 신라시대 항가와 비교할 때 너무 후대여서 항가계 여요라고도 합니다.)

* 향가 25수 중 14수는 삼국유사 기록, 연대는 통일신라시대

11수는 고려 광종 때 균여 스님이 지은 보현심원가 -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화엄경> '보현심행원' 하나하나에 향가 한 수씩을 짓고, 11장은 마지막 결수이다.

① 황조가 - 한역시가, 고대가요. 고구려 유리왕

② 정읍사 -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국문으로 전해짐.

③ 한림별곡 - 최초의 경기체가로 봄.

④ 정과정곡 - 고려가요, 항가계 여요로 보기도 함(10구체 항가의 형식을 하고 있음) 고려 의종, 명종 대에 문신인 '정서'의 작품. 고려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작자가 분명함.

11. 순우리말을 사용한 예가 잘못 된 것은?

- ① 누워있던 그는 얼굴 앞으로 바투 앉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② 그들 둘은 서로 무릎맞춤하는 사이라서 늘 붙어 지낸다.
 ③ 그는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온몸이 젖을 때까지 거리를 헤매었다.
 ④ 막대기를 잃어버린 장난감같이 저 혼자서는 옴나위를 못한다.
 ⑤ 관복인의 키처럼 끌밋하게 쪽 뺨힌 좋은 재목을 구해왔다.

<지나깨> 정답은 (2)번입니다.

① 바투 -

부사 「1」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예) 바투 다가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투 다가가 두 손을 움켜쥐었다./그는 농구화의 코끝을 적실 듯이 찰랑대는 물가에 바투 붙어 섰다.

윤흥길, <완장> 「2」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날짜를 바투 잡다.

② 무릎맞춤 - 두 사람을 대질하는 것

무릎-맞춤

「명사」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날 때, 제삼자를 앞에 두고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여 옳고 그름을 따짐. <속대> 대(待對)·두질·양조대변.

(예) 이 일은 무릎맞춤을 해 보아야 진상이 밝혀지겠다./무릎맞춤을 해야 사실대로 볼겠느냐?/어쨌든 그 돈이 자네에게서 나왔다고 해 왔으니 무슨 일이 있어서 조사를 당하든지 또는 무릎맞춤을 할 경우에는, 전향하고 장사를 한다가에 자네가 천 원을 무조건으로 나를 취해 주었다고만 대답해 주게.<염상섭, 삼대>

③ 노박이로 -

부사 「1」 줄곧 한 가지에만 불박이로. 「2」 줄곧 계속적으로.

(예)그는 겨울을 노박이로 스키장에서 보냈다.

현진건의 <무명탑> 中

아사녀도 팽개와 싹불이가 인제 <u>노박이로</u> 와 있다는 말에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中 ‘그렇지 않다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꾸라 양복일망정 <u>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 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u>’ ④ 움나위 - 명사. 꿈쩍할 만큼의 적은 여유. 움나위-하다 「동사」 꿈쩍할 만큼의 적은 여유밖에 없어 간신히 움직이다. (예) 송기숙, <암태도> 문 지주 머슴들은 겁을 먹고 나가려 했으나 사람이 가득 차 버려 몸을 움나위할 수가 없었다. ⑤ 끝밋하게 - 미끈하고 시원스럽다. 끝밋-하다 「형용사」 「1」 모양이나 차림새 따위가 매우 깨끗하고 현철하다. (예) 끝밋한 풍채/ 끝밋하게 넓은 이마/ 열네 살의 털복숭이 소녀가 이제는 스물두 살의 끝밋한 처녀가 돼 있었다.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2」 손끝이 여물다. 「참」 깔밋하다.
--

12. 군담소설의 종류는 역사군담소설과 창작군담소설로 나뉜다. 각각을 분류하면?

군담소설은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를 흥미의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 작품의 소재를 어디에서 취하였는가에 따라 창작군담소설과 역사군담소설로 나뉜다. ㉠ 창작군담소설은 충신과 간신의 대결로 정쟁에서 몰락했던 가문이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으로 국가에 큰 공을 세우면서 부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도술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기술되고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유교윤리가 강조되면서도 이면에는 충(忠)이나 열(烈)에 대한 전통윤리로부터의 이탈이 심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변혁에 관심이 많았던 평민층이 향유하던 작품으로 추정된다. ㉡ 역사군담소설은 주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민족적 능력을 과시하여 전란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하려는 의식과, 외침을 당하여 무능을 드러내 집권층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담소설은 대체로 주인공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인 호쾌한 활약을 보여주는 통속소설이다. 군담소설은 판소리계 소설과 함께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인기소설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염원을 도선적 신비주의에 근거한 상상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일반 대중의 흥미의 성향과 상상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군이다.
--

- ① 창작 - 임진록, 유충렬전, 신유복전
역사 - 소대성전, 이태경전, 박씨전
- ② 창작 - 박씨전, 소대성전, 장풍운전
역사 - 유충렬전, 임경업전, 임진록
- ③ 창작 - 박씨전, 임경업전, 장풍운전
역사 - 신유복전, 유충렬전, 이태경전

- ④ 창작 - 유충렬전, 소대성전, 장풍운전
 역사 - 박씨전, 임진록, 최고운전
- ⑤ 창작 - 박씨전, 신유복전, 이태경전
 역사 - 임경업전, 유충렬전, 임진록

<지나뻘> 정답은 (4)번입니다.

역사군담 - 임진록, 박씨전, 임경업전, 최고운전

창작군담 - 유충렬전, 신유복전, 소대성전, 장풍운전

‘소대성전, 이태경전, 장풍운전, 최고운전’을 알지 못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업할 때 강조한 내용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임진록, 박씨전, 임경업전은 실제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쓴 역사군담소설입니다.

세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창작군담소설 보기에서 밑줄 친 역사군담소설을 제외시켜보면, 답이 쉽게 나오네요.

임진록

작가, 연대 미상. 한문본과 국문본(삼십여 종의 이본)

소재 - 임진왜란(역사적 사실)

내용 - 다른 소설과는 달리 여러 인물들의 일화들을 순차적으로 엮은 단편집의 성격

구성 -

- ① 전쟁 직전의 국내외 사정과 왜의 침략
- ② 민중들은 결사 항전하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왕조와 양반 계급은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기에만 급급함
- ③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마침내 승리를 이룩하는 과정
- ④ 전후 수습 과정으로 사명당이 왜에 건너가 항복을 받는 장면이다.

< '임진록'의 이본들 >

- ① 이순신, 권율, 송상현, 신립, 이여송 같은 역사 속 실제 인물의 활동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
- ② 실존인물이 아닌 최일영이나 관운장 등을 내세워 허구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것
- ③ 위의 두 계열을 조합한 것

임경업전

인조(仁祖) 때의 명장 임경업의 생애를 전기체로 엮은 작품인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른 뒤의 척외사상(斥外思想), 특히 배청사상(排淸思想)이 전편을 통해서 그 심층에 깔렸다.

조선시대에 저작된 대부분의 군담소설(軍談小說)이 사실(史實)을 비현실적으로 과장하거나 허구화한 데 대하여, 이 작품은 비교적 정사적(正史的)인 사실에 충실한 고대소설이다.

박씨전

소재 : 병자호란(역사적 배경)의 국치(國恥)에 대한 반감

역사군담소설로서 숙종(肅宗) 연간(추정)

줄거리 : 인조(仁祖) 때 이조참판 이득춘(李得春)의 아들 이시백(李始白)은 16세 되던 해 금강산의 박처사(朴處士) 장녀(박씨부인)와 혼인한다. 이시백은 첫날밤 박씨의 용모가 박색임을 알고 놀란다. 소박데기가 된 박씨는 뒤뜰에 초당(草堂)을 짓고 거처하였으나,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고 도술로써 여러 이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이상한 연적(硯滴)을 주어 과거에 장원급제시켰다. 이 때 친정 아버지가 구름을 타고 학의 소리를 내며 찾아와 딸의 훌륭한 허울을 벗겨준다. 시백은 미인으로 변모한 부인에게 마침내 사과하고, 그의 벼슬은 평안감사·병조판서에 이른다.

이 무렵, 호국(胡國)의 가달(可達)이 조선을 넘보므로 그는 임경업(林慶業)과 함께 이를 평정하니 호국에서는 자객(刺客)을 보내 두 사람을 암살하고자 하나 박씨가 미리 알고 예방한다. 또 용골대(龍骨大) 형제가 호병(胡兵) 3만으로 서울과 광주(光州)에 침입하지만, 박씨의 도술에 혼이 나고 물러간다. 이로써 박씨는 충렬정경부인이 되고, 시백은 영의정·세자사(世子師)가 되어 그 자손에게까지 벼슬이 내려졌다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인 이시백은 인조반정(仁祖反正)의 공신이며 호란 때 병조참판을 지낸 실존 인물이며, 그의 부인은 윤씨(尹氏)였다고 한다.

최고운전

신라 말기의 학자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의 파란 많은 생애를 설화적인 허구적 구성으로 영웅화한 작품이다. 최고운이 태어나자 그의 부모는 금돼지의 새끼로 잘못 알고 내다 버리지만, 선녀와 연꽃 및 백조들이 아기를 돌보는 기적이 나타나자 다시 데려다가 키워 학문과 문장으로 크게 떨치게 된다.

하루는 중국 황제가 들으니 시 읊는 소리가 하도 낭랑하여 알아보게 한 즉, 그것은 신라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즉시 신하를 신라로 보내어 알아보았더니, 신라에는 재사가 수백 명이나 된다는 보고에 황제는 신라 석함(石函)에 달걀을 넣고 초로 밀봉한 다음 다시 신하를 시켜 석함 속의 물건을 시로 지어 보내지 않으면 대국(大國)을 가볍게 본 죄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최고운이 이미 그 내용물인 달같이 병아리가 되었음을 작시(作詩)해 보내니 탄복한 황제는 최고운을 중국에 초빙한다. 중국에서 장원급제한 그는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지어 적장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마침내 난을 다스리니 황제는 더욱 감탄한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중국인신하들의 모함으로 외딴 섬에 유배되어 몇 차례의 위기를 도술로 모면한 뒤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다. 왕은 그에게 벼슬을 주었으나 끝내 사양하고 가야산(伽倻山)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는 줄거리이다. 조선시대의 많은 군담소설(軍談小說)이 전쟁을 소재로 하여 민족의 영웅을 창조하고 있음에 반해,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재(文才)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역력한 점이 특색이다.

유충렬전

중국 명나라 홍치(弘治) 연간(1488~1505)에 주부(主簿) 유심(劉尋)의 아들 충렬은 골격이 준수하고 문장과 병법에 통달하였다. 유충렬의 아버지는 간신 정한담(鄭漢潭)과 최일귀(崔一貴)의 모반심을 충간하다가 오히려 연북(燕北)으로 유배된다. 한편 정한담 일파는 후환이 두려워 충렬의 집을 불지르고 모친까지 살해한다. 그 후 충렬은 강승상(姜丞相)에게 구원되어 그의 사위가 되나, 장인 역시 천자에게 충간하다가 유배당하자, 자신은 도승 밑에서 수학하면서 후일을 기다린다. 마침내 충렬은 정한담이 호국(胡國)과 밀통하여 황성(皇城)을 쳐서 천자를 사로잡고 항복을 받으려 할 때 반군을 쳐 없애고 나라를 바로잡는다. 대사마(大司馬) 대장군이 된 유충렬은 아버지와 장인도 구하고 부귀공명을 같이 누렸다는 이야기이다.

신유복전

전라도 무주(茂朱) 땅 신진사의 유복자 신유복(申遺腹)은 다섯 살 때 편모(偏母)마저 여의고 천애고아가 되어 걸식하는 신세였으나, 상주(尙州) 목사의 도움으로 이성(李蟾)의 사위가 된다. 그러나 유복이 걸인이었다 하여 멸시를 받다가 처가에서 내쫓긴 이들 부부는 산기슭에 움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 아내의 권유로 유복은 7년 기약을 하고 원광대사(圓光大師)를 찾아가 무예와 글을 익힌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수원(水原) 부사가 된다. 그리고 지난날 자기를 천대하였던 장인과 처제들을 따듯이 대한다. 마침내 병조판서에까지 오른 유복은 명나라에 가서 변방의 병란을 평정하는 공을 세우고 금의환향,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는 이야기이다.

장풍운전

배경은 중국 송(宋)나라이다. 주인공 장풍운이 소년시절에 도둑의 침범으로 부모와 헤어져 갖은 고생을 치르다가 부처에게 바친 정성으로 아버지를 만난다. 한편 약혼녀 경패(瓊貝)는 어느 절에서 풍운의 어머니를 찾아 모두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줄거리이다.

이태경전 《삼국시대장전(三國李大將傳)》이라고도 한다. 조선 세종 때 가난한 선비 이태경은 지극한 효성으로 관로(官路)에 천거되어 출세를 거듭하다가 명말(明末) 명의 구원 요청으로 오랑캐를 무찌르는데, 기이한 운명으로 헤어졌던 그의 아들 형제들을 이 싸움터에서 만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주인공 부부의 지극한 효성, 주인공이 중국과 호국(胡國)에 건너가 미인들과 맺는 가연(佳緣), 주인공의 아들 4형제가 세우는 전공과 해후 등 3단계의 극적 전개를 보이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13. 다음의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레제시나리오 - 읽기 위한 시나리오
- ② 옴니버스 - 자막으로 구성
- ③ 클라이맥스 - 마지막
- ④ 타이틀백 - 자막과 제목
- ⑤ 페이드인 - F·I 점점 밝아지는 것

<지나뻐> 정답은 (2)번입니다.

옴니버스 - 영화 · 연극 등의 한 형식.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늘어놓아 한 편의 작품으로 만든 것 / 옴니버스 영화, 옴니버스 드라마....

14. 다음 밑줄 친 것 중에서 의미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7월 12일, 아침 첫 차로 ㉠경주를 떠나 ㉡불국사로 향했다. 떠날 임시에 ㉢봉황대에 올랐건만, 잔뜩 찌푸린 일기에 짙은 안개는 나의 눈까지 흐리고 말았다. 시포(屍布)를 널어놓은 듯한 희미한 장줄기, 몽롱한 무덤의 봉우리, 쓰러질 듯한 초가집 추녀가 눈물겹다. 어젯밤에 나를 부여잡고 울던 ㉣옛 서울은 오늘 아침에도 눈물을 거두지 않은 듯. 그렇지 않아도 구슬픈 내 가슴이어든 심란한 이 정경에 어찌 견디랴? 지금 떠나면 1년, 10년, 혹은 20년 후에나 다시 만날지 말지! 기약 없는 이 작별을 앞두고 눈물에 젖은 ㉤임의 얼굴! 내 소매가 축축이 젖음은 안개가 녹아 내린 탓만은 아니리라.

- ① ㉠, ㉡, ㉢ ② ㉠, ㉡, ㉢
③ ④
⑤

<지나뻐> 정답은 (2)번 ㉠ 경주, ㉡ 옛 서울(경주) ㉢ 임(경주)입니다.

6차 교과과정 국어(상)1.(2)단원에 실린

현진건의 <불국사 기행>입니다.

현진건의 불국사 기행은 작가가 1929년 7월 동아일보에 연재한 '고도순례 경주(古都巡禮慶州)'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15. (가),(나) 두 문단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 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 ① 주지 - 보충 ② 전제 - 주지
③ 주지 - 전제 ④ 주지 - 주지

[정답] ①

[해설]김구 <나의 소원> 중 '내가 원하는 우리 나라'

(가)에서는 높은 문화를 소원한다는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난 주지 문단으로, 문화의 힘과 부력(富力), 강력(強力)을 대조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나)에서는 문화의 중요성을 주장함으로써 (가)에서 밝힌 글쓴이의 소원이 갖는 정당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 높은 문화의 힘 소원[주지]

(나) 문화의 중요성[논거]

16. 각 지방별문화 ~~~ 문화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부산 - 김정환 : 사실적 농민 소설
- ② 강원도 - 김유정 : 토속적 농촌 소설
- ③ 전라도 - 김영랑 : 남도의 구수한
- ④ 경남 - 이육사 : 저항과 풍자의 문학

[정답] ④

[해설] 이육사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17.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
- ② 출장을 부산, 광주, 순천 등지로 다녀왔다.
- ③ 총무공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야겠다.
- ④ 이번 행사에 ~부탁 드립니다.

[정답] ④

18. 다음 밑줄 친 한자성어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바른 것은?

이지적(理智的)이요, 이론적(理論的)이기는 둘이 더하고 덜할 것이 없지마는, 다만 덕기는 잇는 집 자식이요, 해사하게 생긴 그 얼굴 모습과 같이 명쾌한 가운데도 안존하고 순편한 편이요, 병화는 거무튀튀하고 유돌유돌한 맛이 있으니만큼 남에게 좀처럼 머리를 숙이지 않는 고집이 있어 보인다

- ① 지음 ② 백척간두
③ 백중지세 ④ 동고동락

[정답] ③

[해설]

백중지세(伯仲之勢) : 낮고 못함이 거의 없음/우열을 가리기 힘들.

[출전] 『예기(禮記)』 단궁상편(檀弓上篇)

[내용]백중은 곧 형과 아우라는 뜻이다. 위나라의 조비는 전론에서 '문인들이 서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했다. 부의(傅儀)와 반고(班固)에 있어서는 백중지간일 뿐이다. '라고 하여 서로의 문재(文才)가 엇비슷해 누구를 재주가 있는 형이라 하고 누구를 재주가 좀 처지는 아우라 할 수 없는 경우에 백중지간이란 말을 썼다.

[동]難兄難弟(난형난제) 互角之勢(호각지세) 莫上莫下(막상막하) 春蘭秋菊(춘란추국)

19. 한자성어의 쓰임이 틀린 것은?

- ① 취업 떨어진 나는 臥薪嘗膽을 꿈꾸며 외국어 학원에 등록했다.
- ② 내가 다녀간 뒤 烏飛梨落으로 아이가 ~
- ③ ~ 白眼視 ~
- ④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직장에 얹매이면 語不成說 ~

[정답]

[해설] 1번과 4번 중 답일 것으로 추측됨

백안시白眼視 [힐 백/눈 안/볼 시] ➡업신여기거나 냉대하여 흘겨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두운 방 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熱)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뒤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 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새 나도
그 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都市)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나)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20. 다음 시의 (가) ~ (다)의 공통적인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②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진실을

③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소중한 것 추구

④

[정답] : ③ [해설]

(가) 김종길 '성탄제' : '서러운 서른 살'이란 현대 문명의 이기 속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찾아 볼 수 없는 삭막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의 모습이다. '눈'을 회상의 매개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산수유 열매)을 깨달으며 황폐해진 현재의 삶에 대한 거부감과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향수를 담고 있다.

(나)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

① 내용

·시인은 이 세상이 그들과 눈물이 있고, 그들과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 그들과 눈물은 삶의 고난이나 역경, 어려움, 소외감 등의 의미와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동정하고 아끼는 마음도 포함되며 시구에 따라 1차적 의미인 음영과 누액으로 쓰일 수도 있다.

② 시의 표현상의 특징, 효과 정리

·시어 - 함축적 의미의 시어(그늘, 눈물, 햇빛) 사용

·문장 표현 - 시의 표현은 일상의 언어 표현과는 달리 시인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현 형태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이중 부정 형태의 문장, 감탄형 문장 표현, 동일 구조의 반복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강조

하고 있다.

(다) 최두석 ‘성예꽃’ : 이 작품은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시내 버스의 차창에 어린 성예를 통하여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시대 현실에 대한 아픔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엄동 흑한’은 군사 독재가 겉옷만 바꿔 입은 채 연장되고 있던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라는 마지막 시구에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는 같은 시대에 사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구속된 벗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그 벗이 화자와 함께 오랫동안 걸어왔다는 그 길(구속과 면회 금지의 원인이 된)이 민중과 민족에 대한 애정을 실천하는 삶이었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성예꽃의 생성과 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